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평가체제의 발전과정과 특성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장효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연구평가체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발전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규율하는 연구평가체제도 복잡다기해지며, 사업전체를 지배하는 거버넌스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평가체제의 진화과정과 특성을 다양한 기술정책환경과 프로그램의 역사적 생성 및 변화과정, 규정 및 규범 등을 중심으로 9가지 변수로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과 산업기술개발사업규정간의 상호긴밀한 관계속에서 유사성과 차별성, 상호의존성 및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둘째, 평가이념중 전문가풀의 규모, 개방성 및 전문성확보수단 문제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평가체제의 대외 개방성 정도와 낮은 전문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각종 프로그램내 과제의 선택전략 및 기획에 대한 유형 및 태도(집중형, 상향형, 하향형, 혼합형 등의 방식과 각종기법 등)을 살펴볼 때 점차 분산된 R&D전략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으나 개별 사업(Program)의 수는 줄지 않았다. 그리고 기획전문가의 등장(PD, MD)현상도 특색으로 나타났다. 네째 중점 R&D분야 및 전략의 내용 및 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제(project)의 대형화, 장기화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기술의 융복합화현상도 나타났으나 상호배타적인 학문간 교류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섯째 사업화에 대한 정책경향이나 전략 및 태도가 지속적인 논점이 되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과제수행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일부 나타났으나 이의 구체적 프로그램화까지는 이르지못하였으며, 획일적 지원의 틀을 벗어났는 의문이다. 이는 과제수행중 중간평가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된다. 일곱째, 장기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윤배반적 모순된 가치인 단기적 시장성을 강조(과제수행의 장기성을 저해)하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되었다. 미래가 요구하는 시장구현의 측면이 어려웠다. 여덟째 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방식의 엄격성측면에서 과제선정기준이 절대평가제가 아닌 상대평가제로서 취약하고 과제선정시 상대평가주의가 지속되었다. 부분적으로 절대평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결과평가에서 절대평가주의를 택하였으나 낮은 성과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아홉째 연구과제 수행기준 및 방식의 엄격성 측면에서 선정기준이 낮고 연구목표가 모호함, 그리고 연구윤리취약 등으로 인하여 느슨한 연구수행기준을 낳고 결과적으로 성과는 낮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를 규제하고 연구수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및 발전(강화)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연구수행규범(규정)의 엄격화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R&D프로세스의 부단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폐쇄적인 전문가풀에 기인한 다양한 한국고유의 연구평가문화가 생성되었다.

주제어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평가체제, 규정, 평가이념